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2026.11.20.(금) 18:00
(지 면) 2026.11.21.(토) 조간

행정안전부 장관, 도로살얼음 취약구간 안전관리 실태 점검

- 안양시 대설·결빙 도로 안전 대비태세 점검, 결빙주의 표지판 직접 설치
- 결빙 취약구간 예방시설 확충을 위한 재난특교세 90억 원 추가 지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20일(금) 경기도 안양시 제설 전진기지와 도로살얼음 취약구간을 찾아 겨울철 대설·결빙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11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결빙 취약구간 사고에 대한 철저한 예방조치와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관계기관의 대응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윤호중 장관은 안양시 제설 전진기지를 방문해 제설제 비축량과 제설장비 가동 상태, 인력 확보 현황, 비상연락체계 등 강설에 대비한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또한, 기습적인 강설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설장비와 자재를 상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교량과 터널 출입구 등 도로살얼음 발생 우려가 큰 구간을 찾아서 도로 여건과 결빙 위험요인을 살피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도로살얼음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순식간에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가 위험구간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결빙주의 안내표지판'도 직접 설치했다.

* 2026. 1. 10.(토),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 인근 다중추돌사고(사망 5명, 부상 10명)

※ 최근 5년간 겨울철 도로 결빙사고는 평균 884건, 인명피해는 16명(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아울러, 관계기관에 취약구간 순찰과 노면온도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하고, 결빙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를 미리 살포하는 등 예방 중심의 도로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도로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 결빙주의 표지판, 미끄럼 방지 포장 등 안전시설 확충에 재난특별교부세 9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 제설제와 제설장비 확보 등을 위한 재난특교세 100억 지원(10.30.)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도로살얼음은 눈에 잘 띄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험구간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위험이 예상되는 곳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	책임자	과 장 이일령 (044-205-5230)
		담당자	서기관 현종일 (044-205-5234)
		담당자	사무관 최회동 (044-205-5236)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송상훈 (044-205-5110)
		담당자	사무관 류해춘 (044-205-51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